Daishin 증권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 년 4 월 1 주차

- **금리:** 과도한 상승에도 당분간은 공포감이 지배하는 시장 **환율:** 지정학 리스크발 에너지 가격 불안 해소 전까지는 상방 압력 지속
- **국내증시:** 지정학 + 반도체 이슈. KOSPI 선행 PER 8배 하회시 비중 확대 **글로벌 증시:** 중동 지정학 완화 시 안도랠리 도래 전망
- **원자재:** 종전 협상 불확실하나 단기 시나리오 유효. 추가 상승 제한적 **부동산:** 강남권 다주택자 매물 發 조정 마무리 국면. 정책 주시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터보 퀀트는 단기 심리적 악재일 뿐

- 터보 퀀트 관련 우려에 반도체 조정, 장 중 낙폭은 회복
- 중동 불확실성 지속, 주말 트럼프 리스크 경계
- 고유가 수혜 업종 차익실현, 업종별 순환매 전개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Commodity

문제의 이란 전쟁, 경기침체 가능성 경고하는 비료

- 전 세계 20% 수출이 중단된 가스, 냉방 시즌 반영될 5월 중순(월물 교체),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이란 전쟁 지속 시 가격 급등 불가피
- 밥상 물가 다스리는 천연가스, 2022년과 2008년 때처럼 '가스→비료→곡물→사료→돈육'으로 연결되는 스태그/경기침체 우려 요인
- 그러나 단기(4월)에 그칠 전쟁. 중국과 에너지 장기 계약 체결 시 물러날 트럼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요구도 미국에 우호적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Daishin's View

Daishin Research Center

2026년 4월 1주차

[금리] 국고 3년 3.20~3.70%

과도한 금리 상승이나 당분간 공포감이 지배하는 채권시장

이란 전쟁 이후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인상 전환에 대한 불안까지 불거짐. 과도한 금리 상승 평가에도 공포 심리가 시장 지배. 한국은 신임 한은 총재 지명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빠르게 확산. 그러나 이미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까지 금리가 높아져 과매도 영역이란 인식

[환율] 달러원 환율 1,400~1,530원

지정학 리스크에 연동되는 장세. 에너지 가격 불안 해소 전까지는 상방 압력 계속

미-이란 전쟁으로 외환시장 높은 변동성 지속 중. 3월 들어 달러-원은 유가에 전적으로 연동되는 상황. 사태 진정 시 빠른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은 모두 알고 있지만,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방 압력에 노출이 불가피. 단기 오버슈팅 경계

[국내 증시] KOSPI 5,000~7,500p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도체 이슈 가세. KOSPI 선행 PER 8배 ↓. 적극 비중확대 기회

KOSPI 5,000선 초반, 선행 PER 8배 이하에서 비중확대 전략 강화. 4월 중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예상. 터보 퀀트로 인한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과도하다는 판단.

오히려 정책 드라이브 강화, 1Q 프리어닝 시즌 맞아 선행 EPS 상승세 뚜렷.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시 펀더멘털 동력과 밸류에이션 매력에 근거한 상승추세 재개 전망

[글로벌 증시] S&P500 6,400 ~ 7,700p

중동 지정학 위기 완화 시, 안도랠리 도래. 전쟁 변수 제외 시 현 투자환경 Risk-On

美 4.9일 종전 시한 설정, 이란과 협상 진행 등 중동 긴장 완화 기대 부각. 전쟁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우려 불구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빅테크 중심의 지속적 기업이익 증가 주목. 전쟁 종전 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한 여파는 최소 1~2달 더 지속될 것. 무역수지 감소,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감소 등 우려에서 빗겨서 있는 에너지 순수출국 선호를 높이는 요인

[원자재] WTI 85~105$/bbl.

종전 협상에 대한 의구심 여전하나 단기 시나리오 유효. 추가 상승은 제한적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주요 쟁점(우라늄 농축 포기, 핵 시설 해체 등) 협의 이뤄졌다며 종전 가능성 언급. 반면, 이란은 협상 중 2차례 공격 받아 의심, 실제로 미국은 82공수 파병 승인. 다만, 단기 시나리오 유효. 미국은 이란이 요구한 피해 배상금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에 대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용인하는 방안 거론. 합의 전까지 변동성 크겠지만 추가↑ 제한적

[부동산] 주택 : [조건부] 보합, 상업 : 상승.

강남권 다주택자 매물 發 조정은 마무리 국면, 정책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 有

주택 :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조정은 마무리 국면. 다만, 1주택자 세제 변화 수준에 따라 5월 이후에도 물량 증가 가능성 有, 다만, 전세가율 높은 중저가 지역의 수요 드리븐 상승 지속

상업 : 시장 금리 상승과 오피스 임대 시장 둔화로 투자 매력도 감소, 다만 유동성 충분한 상황에서 수급은 대형/신축/주요권역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터보 퀀트는 단기 심리적 악재일 뿐

- 터보 퀀트 관련 우려에 반도체 조정, 장 중 낙폭은 회복
- 중동 불확실성 지속, 주말 트럼프 리스크 경계
- 고유가 수혜 업종 차익실현, 업종별 순환매 전개

터보 퀀트 관련 우려에 반도체 조정, 장 중 낙폭은 회복

구글의 '터보 퀀트' 관련 우려가 지속. LLM의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배 줄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메모리 사용 효율 개선이 메모리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부각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79% 하락했고, 마이크론(-7.0%), 샌디스크(-11.0%) 등 급락하면서 메모리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 훼손

다만, 제본스의 역설을 다시 상기할 필요. 기술의 진보로 자원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자원 사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비용 하락을 통해 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총 자원 사용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

전일부터 금일 장 초반까지 이어진 반도체 하락은 불안정한 지정학적 여건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빌미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 반도체 대형주는 장 초반 급락한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

반도체: 삼성전자(-0.2%), SK하이닉스(-1.2%), 한미반도체(-0.9%)

중동 불확실성 지속, 주말 트럼프 리스크 경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발언과 행동에서 상충된 태도를 지속.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를 4월 6일 오후 8시까지 열흘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후에는 미국 지상군 1만 명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WSJ 보도

금요일 미국 증시 종료 이후 주말 사이 트럼프의 강경 발언과 돌발 행보 가능성 부각. 트럼프 취임 이후 금요일 수익률 평균은 -0.23%로 주간 가장 낮은 통계

지속되는 중동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유가는 WTI 92달러,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고유가 수혜 업종 차익실현, 업종별 순환매 전개

업종별 순환매 양상. 코스맥스, 화장품 ODM 최초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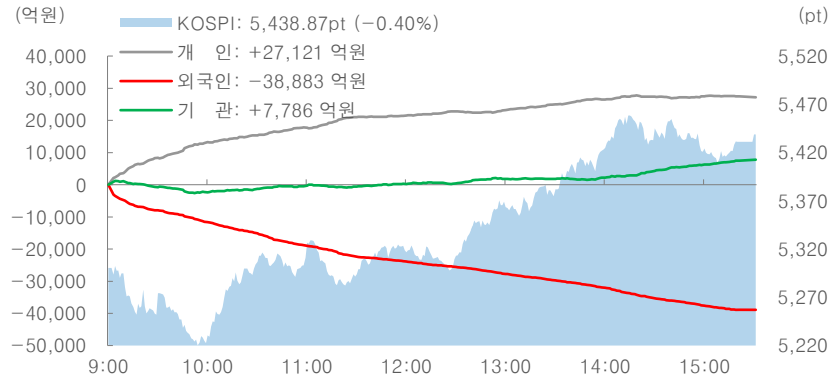
화장품: 코스맥스(+8.6%), 에이피알(+5.5%), 아모레퍼시픽(+6.2%) 등

장 전 유가하락. 대체 에너지 수요 기대로 급등했던 업종 차익매물 출회

대체에너지: 한화솔루션(-3.1%), 두산에너빌리티(-2.8%), OCI홀딩스(-2.5%)

전력기기: HD현대일렉트릭(-5.2%), LS ELECTRIC(-4.0%), 효성중공업(-6.4%)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modity

문제의 이란 전쟁, 경기침체 가능성 경고하는 비료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문제의 천연가스, 냉방 시즌 반영될 5 월/6 월 중순까지 전쟁 지속 시 급등
- 밥상 물가 다스리는 천연가스, '22/'08 년처럼 비료발 경기 침체 유발 가능
- 그러나 이란의 요구(호르무즈 통행료)가 나쁘지 않은 미국, 단기전 유효

문제는 밥상 물가 핵심인 가스, 5 월/6 월 중순까지 전쟁 지속 시 침체 준비

두바이유와 오만유 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원유 수출 차질이 발생했지만 실제 규모는 시장의 우려(전 세계 공급의 20%)를 하회하고 있다. 주요 3국의 우회 시설(860~1070만b/d)과 이란의 정상 수출(180만b/d), 항행이 허용된 일부 선박 덕에 전 세계 공급의 7.5%만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분명 큰 규모이지만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유가 아니라 천연가스이다. 카타르산 LNG는 우회로가 부재한 탓에 전 세계 공급의 20%가 사실상 차단됐다. 지금은 비수기(난방 시즌 종료)가 천연가스 가격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만 여름철 냉방 시즌이 반영되는 5월 중순(월물 교체),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상황 개선이 없을 시 2022년 초와 같은 가격 급등은 불가피하다.

특히, 천연가스는 경기 침체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천연가스는 단순히 전력원이 아닌 밥상 물가를 다스리는 원료이다. '천연가스→질소계 비료→곡물→사료→돼지'로 연결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점이다. 2022년과 2008년때도 비료/농화학 지수 상승이 S&P500의 폭락을 경고했다. 지금 비료 가격은 호르무즈 해협발 수출 중단(전 세계 공급의 30%) 사태로 상승했지만 5월 중순/6월 중순까지 현 상황이 지속될 시 가스발 2차 폭등이 불가피하다. 침체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만, 아시아와 장기 계약 체결하면 물러날 미국, 이란의 요구도 나쁘지 않다

다만, 전쟁을 예단할 수 없지만 여전히 단기(4월 중) 시나리오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전쟁의 본질은 러-우 전쟁처럼 영토(주권) 문제가 아닌, 철저히 실리(돈)를 위한 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포기를 명분 삼고 있지만 이란은 개전 직전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공격했다는 것은 이전 자료 〈탈카타르의 서막, Make America LNG Again('25.09.09)〉에서 전한 것처럼 중동 문제를 지렛대 삼아 아시아에서의 M/S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중국(미중 정상회담), 인도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가 사태의 진정 시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란과의 합의는 필수이다. 이란 측은 전쟁 피해 배상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종전에 대한 회의가 드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역시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해결 방안이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는 일부 해외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것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중국, 인도, 일본 등)에 대한 이란의 통행료 부과(예: 200만배럴 선적 가능한 VLCC급 유조선 1척당 200만달러 = 배럴당 1달러)를 용인하는 대체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에 득이 되지만 중동산 에너지와 경쟁(운임비 문제)하는 미국에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상호 실질적 이익만 확보되면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위험자산에 대한 마지노선을 5월 중순(헨리허브 월물 교체), 늦어도 6월 중순으로 두되 그 이전까지는 단기 시나리오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